

대중스타와 사이버종파 - 그 위험하고도 은밀한 밀월

추태화 (기학연 실행위원,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I. 대중스타라는 자리

현대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로 자기를 표현하고 문화로 소통한다. 문화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자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예를 들면 몸을 치장하는 악세서리로 그날의 분위기를 말하고 옷으로 감정을 전달하기도 한다.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상대방에게 인사말(small talk)을 건넬 때 문화는 인간적 교감을 위한 즉각적인 매체가 된다. “옷이 참 아름답습니다.”는 한 마디로 대화가 시작될 때 두 사람 사이에 문화는 이미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다.

문화를 가공하고 문화에 이미지의 옷을 입히는 영역에 대중스타가 있다. 이들은 그들만의 개성을 가지고 성격(character)을 표현해내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고유한 성격과 관계없는 역할을 하므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대중스타는 사회적으로 인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킨다. 인기는 다른 한편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요인이어서 문화생산자들에게는 더 없는 매력포인트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슬로건처럼 스타에게는 “모든 길은 최정상의 인기로”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스타들은 그래서 인기를 얻지 못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 증상에 빠지게 된다. 항정신성 환각제 사용이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이유는 여기에 한 원인이 있다.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비극을 발견할 수 있다.

스타는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공인이라 할 수 있겠다. 대중들은 그들의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자신들과 교감을 나누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보다는 대중스타의 생활에 울고 웃는다. 직접적인 교감을 나누지 않는 대중스타와 더 친밀한 감정이입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대중스타들은 인기를 잃지 않기 위해 어떤 유혹에 떨어지기도 한다. 스타에게 일어난 스캔들이 자작극으로 밝혀지는 사례가 그런 은밀한 욕망이 숨어있음을 말해준다. 스타에게 뺏치는 사이버종파들의 유혹이 그런 공생관계를 알려준다.

II. 스타 톰 크루즈와 사이언톨로지

톰 크루즈는 설명이 필요없는 할리우드 대형스타일 것이다. 그가 출연한 영화는 블록버스터형 스크린들이고 그의 사생활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세간에 이야기거리가 된다. 얼마전 크루즈에 관한 한 비디오가 발견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의 비디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 내부에서만 몇 년 동안 은밀히 유통되어오던 것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었다.

휘황찬란한 연단에 서 있는 스타는 영화배우로 세계적 유명세를 얻고 있는 톰 크루즈였는데 그는 이 종파가 선사한 황금메달들 목에 걸고 자랑스럽게 ‘신앙고백’을 하고 있었다. 이를 일면 톱기사로 내보낸 독일의 일간지 “빌트 암 존탁”은 이 사건이 얼마나 경악스러운지 말하고 있다. 미디어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 비디오에는 크루즈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는데, 그는 종파의 신념에 압도당한 듯 말한다. “사이언톨로지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들을 개선할 능력도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를 믿는 신도들은 정신의 지배자들입니다...” 또한 그의 연설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할 시대가 당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깨끗이 청소할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III. 나치의 망상이 되살아나다

독일 국영방송의 자문위원인 크넨프교수는 이 장면이 나치주의의 선전상을 지낸 괴벨스의 연설을 모방하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고 평가하였다. 괴벨스는 독일 국민들을 제2차 세계대전에 몰아넣도록 선동하는 프로파간다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는 히틀러를 양아버지처럼 따르던 지식인이었는데, 1933년 당시 독일나치당의 선전장관에 오르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일당독재를 주장하는 국가사회주의당과 히틀러를 국가적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1937년 즈음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기 직전 괴벨스는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며 “독일 국민들이여, 전면적인 전쟁(Totaler Krieg)을 원합니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그의 현란한 수사학으로 전쟁을 부추겼었다.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를 선전하면서 발언한 내용들이 독일인들에게는 과거 나치당의 망언들을 회상시켰다는 것이다. 그만큼 충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장면이었다고 고백한다.

한 사이언톨로지 연구가는 “크루즈가 평범한 회원이 아니라 사이비종파의 선전부장이 되었다. 그는 이 종파의 괴벨스다.”라고 비평하였고, 함부르크의 사이비종파 연구가는 이렇게 진단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사이언톨로지가 전체주의적이며 비규범적인 조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크루즈는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크루즈는 나치시대에 히틀러 암살을 주도했던 슈타우펜베르크 백작의 생애를 다룬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다. 이 비디오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계언론들은 동시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워싱턴포스트는 “호로 영화”에 비교할만하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버팔로 뉴스는 크루즈를 향해 “위험한 사나이인가, 몰락하는 스타인가?”라는 제호의 기사를 내보냈다. 애리조나주의 한 신문은 “가공할 영상물”이란 평가를 내렸다.

한동안 크루즈는 난독증이라는 증상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이 증상은 글을 읽을 수 없이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었는데 그가 이 병을 앓던 중 사이언톨로지의 전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뒤 크루즈는 사이언톨로지가 세상을 바꿀 희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이언톨로지는 그들이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에서도 사이비종파로 분류되고 있다. 버팔로 뉴스가 뽑은 제목(“위험한 사나이인가, 몰락하는 스타인가?”)은 대중스타와 사이비종파 사이의 모종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크루즈는 사이언톨로지를 통해 상실해가는 인기를 다시 얻고, 이 종파는 대중스타를 통해 역시 잊혀져 가는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다. 대중스타와 사이비종파의 윈윈 전략으로

그만한 것이 또 있을까.

IV. 스타를 통한 영적 전쟁

대중스타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시대이다. 그들이 사생활에서 보인 한 행동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팬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다. 청소년들은 스타의 죽음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까지 하는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지나쳐서 안될 것이다. 존 트라볼타, 리처드 기어, 톰 크루즈 등의 스타들은 신비적 명상 종교와 사이언톨로지에 빠져 대중들에게 사이비종파를 선전하고 있으니 공인적 삶을 사는 이들의 영향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지 염려되는 바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어느 스타 부부는 자녀들을 입양하여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인간미를 전해 주고 있고, 어느 남자 가수는 수십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스타의 영향력이 간과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문화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대중스타들도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와 죄와 흑세무민하는 정신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이비종파가 그들에게 마수의 손길을 뻗지 못하게 해야 한다. 차제에 사이비종파가 펼치고 있는 문화를 통한 포교전략도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